

초특급 한류스타 전지현·이민호와 드라마마다 대형 홈런을 친 박지은 작가가 만났다.

오는 16일 밤 10시 첫 방송 되는 SBS TV 수목드라 마 '푸른 바다의 전설'을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인 유몽 인(1559~1623)이 엮은 설화집 '어우야담'의 한 대목 에서 출발한다.

협곡 현령 어부로부터 인어를 구해 푸른 바다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현대 지구에 남은 마지막 인어와 사기꾼의 곡절 많은 사랑 이야기로 탈바꿈 했다.

이미 '별에서 온 그대'(SBS TV·2014)에서 판타지 섞인 로맨틱 코미디를 능수능란하게 요리한 박 작가 의 역량에 기대를 걸게 되는 작품이다.

'주군의 태양'과 '닥터 이방인' 등에서 감각적인 연 출을 보여준 진혁 PD가 제작을 진두지휘한다.

진 PD는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우리나라 전설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어가 현대의 서울에 왔을 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전지현(35)은 지중해 외딴섬에서 뭍사람 허준재를 만난 뒤 그를 찾아 미지의 육지로 모험을 감행하는 인어 심청으로 등장한다.

인어 심청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천재적인 사기구 친주재는 이미호(20)가 여기하다

기꾼 허준재는 이민호(29)가 연기한다. 두 배우는 작품 출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하나같

이 박 작가가 집필한다는 점을 꼽았다.

전지현은 "대본을 받아보니 유쾌하고 사랑스러 움도 넘치는 캐릭터였다"며 "특히 박지은 작가와 호흡이 잘 맞는 만큼 연기에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전지현이 박 작가와 다시 만났다는 점 때문에 일부 는 천송이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 인어 모습은 천송이보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엽기적인 기행을 일삼던 그녀 캐릭터에 더 가까워 보였다. 전지현도 "인어와 천송 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인어가 처음 만난 남자인 허준재를 비롯해 세상에서 만난 모든 것이 신기한 역할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일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또 완성된 화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새롭고 신비로웠지만 막상 수중 촬영 때는 힘들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설렘을 준 캐릭터이긴 한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 제가 수영도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 신경도 있어서 몸으로 표현하는 일은 모두 자신 있는데정말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이런 캐릭터를 맡지 않겠단 결심을 매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 본 인어 모습이나 인어와 허준재가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면 후회는 없어요."

5년 전 드라마 '시티 헌터'에서 이민호와 만났던 진 PD는 "당시는 어리고 이미지가 강한 스타였다면, 이 제는 남자다움과 성숙미를 풍기는 데다 연기자로서

MRC

의 모습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천재적인 두뇌와 다 비드상을 연상케 하는 외모의 "의적에 가까운 사기 꾼"은 이민호가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최상 의 선택처럼 보인다.

이민호는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그려내려고 노력 했다"며 "사기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고 말했다.

전지현과의 호흡에 대해 "아우라가 다른 배우들보다는 강해서 전작에서 만난 다른 배우들보다 친해지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어떻게든 허준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인어가 좌충우돌하는 사이, 허준재는 자신으로부 터 세상을 배워 나가는 인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연 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평행이론을 차 용했다.

현대의 심청과 허준재가 조선 시대 세화와 담령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교차한다. 강원도에서 세도가 이상의 권세를 누리는 여각주인과 탈옥수 1인 2역을 하는 성동일도 조선 시대와현대를 오간다. 신혜선이 허준재를 짝사랑하는 차시아로 등장한다.

성동일(52)은 "전지현, 이민호와 극 중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모든 연기를 쏟아부을 것"이라고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연합뉴스

# 안치환 신곡, 국민 열망 담았다

### "역사 바꾸는 길 동참 하고파"

'시대의 노래꾼'으로 불리는 가수 안치환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열망을 노래에 담아냈다.

소속사 숨엔터테인먼트는 "안치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국민적 저항에 노래로 동참한다"며 17일 디지털 싱글 '권력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곡은 권력의 비굴하고 씁쓸한 두 얼굴에 일침을 가한다.

'오늘도 거리엔 사람들이 모이고 소리 모 아 외치고 또 둘러싼 경찰들 그들을 바라보 는 높은 곳에 그분 무슨 생각하실까 생각이 나 할까/ 권력이란 무상한 것 무섭다가 우 스운 것 똥오줌 못 가리는 것 달콤하다 쓰디 쓴 것 날아가다 기어가는 것 매우 외로운 것 늙어 숨어 사는 것 끝이 초라한 것'('권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중)

안치환은 "정의로운 세상을 세울 수 있



는 기회를 허망하게 보내 버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노래를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며 역사를 바꾸는 길에 음악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곡은 안치환닷컴(www.anchihwan.com)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SBS '낭만닥터 김사부' 시청률 쑥쑥

#### 한석규 카리스마 눈길

돌아온 한석규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다. SBS TV 월화극 '낭만닥터 김사부'가한석규의 화면 장악력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시청률이 매회 상승하고 있다.

15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 3회는 전국 시청률 12.4%, 수도권 시청률 13.2%를 각각 기록했다. 1회 9.5%, 2회 10. 8%에 이어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제빵왕 김탁구', '구가의 서', '가족끼리 왜이래' 등을 히트시킨 강은경 작가의 신작 인 '낭만닥터 김사부'는 시골 병원을 배경으로 귀신같은 솜씨를 자랑하는 외과의 김 사부와 출세욕에 사로잡힌 젊은 의사 강동주,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적 문제를 앓는 의사 윤서정의 이야기를 그린다.

강 작가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 설정 과 예측불허 에피소드, 빠른 전개 등으로 1 회부터 시청자들을 확 끌어당기고 있다.

EBS1

또 한석규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중 심으로 유연석과 서현진 등이 고루 호연을 펼치면서 이야기의 생동감이 배가된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이러한 상승세와 반대로 KBS 2TV '우리집에 사는 남자'의 시청률은 뚝뚝 하락하고 있다. 수애, 김영광주연의 '우리집에 사는 남자'는 하락세를 거듭하다 14일에는 4.5%를 기록하며 5% 아래로 시청률이 떨어지고 말았다.

한동안 악역 행진을 펼치던 수애가 발랄 하고 명랑한 코믹 연기에 도전했지만 허술 한 이야기 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 고 있다.

이들과 경쟁하는 최지우, 주진모 주연의 MBC TV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8.9%로 꾸준히 제자리를 지켰다.

한편, '낭만닥터 김사부'의 선전에도 월요일 밤 승자는 여전히 KBS 1TV '가요무대'로 나타났다. '가요무대'는 14일 13.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4주 연속 월요일 밤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69

KR91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C / SBS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SBS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3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대식가들(재) 35 강연100'C 라이브스페셜	00 수목드라마 〈공항가는길〉(재)	00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풍아〉(재)	00 TV블로그 꼼지락 05 위대한 유산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쇼핑왕 루이〉(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꼼지락 55 테마스페셜
0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별별가족	00 비타민 (재)	3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55 닥터 365
2	00 2016 축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열린 TV 시청자세상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2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어사 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통	50 일일드라마〈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당신은 선물〉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트릭앤트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OV O시 로린다
10	00 시사토론'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오 마이 금비〉	00 수목드라마〈역도요정김복주〉	00 수목드라마〈푸른 바다의 전설〉
<b>(1)</b>	00 KBS 뉴스라인 40 인간탐구 위대한 질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2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KBS특선 공연실황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KRS2

### 05:00 EBSe 생활 영어 10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

(5천년의 공존 인도네시아 물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최고다 호기심 천국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티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부모-위대한 엄마

####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파김치와 무말랭이 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잭과 팡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쿵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래)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명의(재) 20:40 다큐 오늘 〈먹을 것은 광저우에서〉 20:50 세계테마기행 〈올라(Ola), 포르투갈 - 찬란한 예술의 도시〉 21:30 한국기행 〈은비령로드 - 은비령 만나거든〉 21:50 EBS 다큐 프라임 〈교육대기회 시험 - 서울대 A+의 조건〉 22:45 극한직업 〈대방어잡이〉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 知天命이 설문 오늘의 운세



48년생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60년생 맹점을 보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72년생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84년생 능숙하지 못한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자. 행운의 숫자 : 74,73



49년생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61년생 침착하게 대응 해나간다면 오히려 빠르리라. 73년생원 레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85년생 이루어지기는 하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59,67



50년생 중요한 일이 논의 될 것이니 놓치지 말자. 62년생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74년생 진흙탕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보인다. 86년생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변수가 다채롭게 작용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36, 20



받는다. 63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태의연할 뿐이다. 75년 생 충분한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7년생 평소에 마음먹었던 바를 실행하게 되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71,56

51년생 아무리 좋더라도 지나치다 보면 분명히 활동에 지장을



40년생 미세하였던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52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넘어가도 된다. 64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76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촉매제가 되어 줄 것이다. 88년생 일목요연하게 수립하라. 행운의 숫자 : 37,18



41년생 기적처럼 일어나리라. 53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이만 한다. 65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 낸다. 77년생 임시 미봉책은 두 벌일 시킬 것이니 제대로 하자. 89년생 옛것으로부터 기회가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9,41

# 2/

午

# **11월 16일**(음 10월 17일 壬寅)

〈안티팬이 열혈팬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건에 착실히 순응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할만하다. 66년생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78년생 따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9,25

42년생 봉합되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터지리라. 54년생 현실 여



43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55년생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다. 67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 서 의외의 행운이 따르게 된다. 79년생 수효보다 영향력에 비중 을 두는 것이 마땅하도다. 행운의 숫자 : 26, 16



44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니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잘 살펴보아라. 56년생 재물 운이 훨씬 좋아지고 있으니 진력해 보자. 68년생 실망하여 허탈해질 수 있다. 80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2,07



45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할 것이니 항시 무리하지 말아야한다. 57년생 전면적으로 나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9년생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본래의 의지대로 행하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29,51



46년생 할 일이 밀려 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58년생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라. 70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계속 지연만 되는 동세이다. 82년생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다가 올 일에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77,93



47년생 일관된 소신을 바탕으로 하는 언행이 바람직하다. 59년 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함이 바람직하도다. 71년 생 어울린다면 목표에 다가서게 된다. 83년생 성과를 확신한다면 당장 실행해도된다. 행운의 숫자 : 63,80

변 영경 설명에도 된다. 앵군의 굿사 · 03, 8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